

전방욱 총장 중간평가 보고서

2014. 12. 15.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목 차

제1부 평가 종합 -----	1
1. 조사방법 -----	1
2. 분석방법 -----	1
3. 조사결과의 요약 -----	2
1) 전체요약 -----	2
2) 문항별 요약 -----	3
3)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 요약 -----	5
제2부 문항별 분석 -----	7
1. 설문 문항별 응답 -----	7
2.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 -----	20
1) 가장 잘한 일 -----	20
2) 가장 잘못 한일 -----	24
3. 심화분석 -----	38
1) 두 문항간의 상관관계 -----	38
2) 두 모평균의 차이에 관한 추론 -----	38
3) 두 문항 간의 동일성(독립성) 검정-----	39

제1부 평가 종합

1. 조사방법

본 조사는 총 설문 문항 19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4문항은 교수 인적 사항에 대한 문항으로 실제 총장의 중간 평가와 관련된 문항은 13 문항이다. 그리고 추가로 개방형 설문을 두 개 넣어 응답자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총 355부를 배포하였는데 193부가 회수되어 전체의 2분의 1이 넘는 54.4%의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단과대학별로 회수율은 조금 달라서 인문대학은 69%, 과학기술대학은 66%, 생명과학대학은 62.2%, 공과대학과 예술체육대학은 각각 60%, 자연과학대학은 48.7%, 사회과학대학은 47.8%, 치과대학은 40.9%, 보건복지대학(문화대학)은 27.6%로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표 1> 각 단과대별 설문지 회수율

구분	설문조사 대상자	설문지 회수	회수율(%)
인문대학	42	29	69.0%
사회과학대학	46	22	47.8%
자연과학대학	39	19	48.7%
생명과학대학	37	23	62.2%
공과대학	35	21	60.0%
예술체육대학	30	18	60.0%
치과대학	44	18	40.9%
보건복지대학(문화대학)	29	8	27.6%
과학기술대학	53	35	66.0%
합계	355	193	54.4%

2.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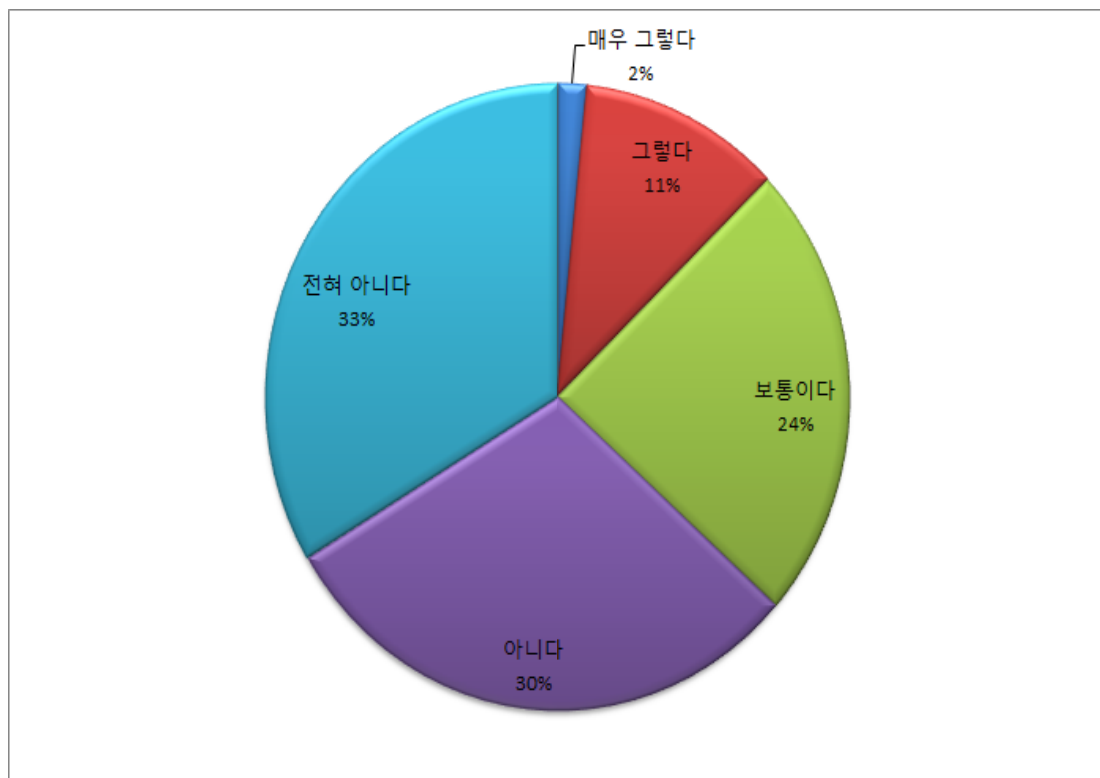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각 문항에 대한 답안 중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 (2) 통계적 분석의 편의를 고려하여 각 문항을 “5=매우 그렇다”, “4=그렇다”, “3=보통이다”, “2=아니다”, “1=전혀 아니다”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평가를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 (3) 분석도구로는 엑셀과 STATA를 사용하였다.

3. 조사결과의 요약

1) 전체요약

- 조사결과 총 평균은 2.17이었다.
- 13개 문항 전체의 응답 결과는 그림 1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1> 응답 답안 분포 백분율

총 응답 중 “매우 그렇다”가 2%, “그렇다”가 11%, “보통이다”가 24%, “아니다”가 30%, “전혀 아니다”가 33%를 차지하여 긍정적인 응답이 13%, 부정적인 응답이 63%로 긍정적인 응답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이 약 5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2) 문항별 요약

총장 중간평가의 문항별 평균은 <표 2>와 같다. 각 문항에 대한 평가에서 3점을 평균점으로 하였을 때 모든 문항이 평균 3점미만을 보여주고 있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 총장이 약속한 교수회 법정기구화의 이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가장 부정적인 평균 1.66을 받았으며, “현 총장 취임 후 교직원의 보수 및 복지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 역시 평균 1.75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현 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역할(교직원간의 화합 및 소통, 지역과 대학의 소통 등)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평가는 평균 2.03, “현 총장이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 등 주요정책 수립에 교수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평가는 평균 2.14, “현 총장이 보직자를 공정하게 인선, 임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평가는 평균 2.20, “현 총장의 취임 후 대학운영 성과의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과 “현 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역량(리더십, 연구기획력, 협동심 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가는 똑같이 평균 2.23으로 나타났으며, “현 총장이 지역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가는 평균 2.25, “현 총장의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가는 평균 2.29, “현 총장이 진행한 우리대학 구조조정이 합리적으로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가는 평균 2.31, “현 총장이 대학발전을 위하여 교육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충분히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가는 평균 2.32, “현 총장의 취임 후 교육과 연구요건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가는 평균 2.35, “현 총장이 대학운영 기본철학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평가는 평균 2.51로 설문 문항 13개 모두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결론적으로, “전방욱 총장의 행정행위 및 공약이행에 대한 중간평가 설문”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교수 고발, 징계, 해임 등 교권 침해, 학내 구성원 간 소통 및 화합문제, 보직자 임명 및 적절하지 못한 인사, 일방적인 학과 구조조정, 기성회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교수회 법정화 불이행, 대외활동 및 리더십, 교직원의 복지, 지역과의 소통 등에 대한 결과로 볼 때 총장이 전체 교수들에게 한 본인의 핵심공약 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대학은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전방욱 총장의 대학운영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 왔음을 시사한다.

<표 2> 총장 중간평가 문항별 평균

문항	내용	평균
1	대학운영 기본철학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대학을 운영	2.51
2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 등 주요정책 수립에 교수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2.14
3	교수회 법정기구화의 이행	1.66
4	지역사회로부터 지지	2.25
5	우리대학 구조조정이 합리적으로 잘 진행	2.31
6	보직자를 공정하게 인선, 임명	2.20
7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음	2.29
8	대학발전을 위하여 교육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충분히 대외적인 활동	2.32
9	교직원의 보수 및 복지 수준이 향상	1.75
10	교육과 연구요건의 개선	2.35
11	총장으로서의 역량(리더십, 연구기획력, 협동심 등)	2.23
12	총장으로서의 역할(교직원간의 화합 및 소통, 지역과 대학의 소통 등)	2.03
13	대학운영 성과의 전반적인 평가	2.23
전체평균		2.17

3)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 요약

■ 긍정적인 시각

내용	빈도
- LINC 등 다양한 대학재정 지원 사업 및 특성화 사업 선정	8
- 교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3
- 예체능대학 통합 등 학과 구조조정	2
- 학생맞춤형 교육(수요자 중심 교육)	2
- 연구업적 기준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연구하지 않는 교수의 문제점을 해결하려 시도한 일	2
- 국공립대 평가 순위를 어느 정도 향상 시킨 점	2
- 교육부 예산을 차질 없이 가져옴(낮은 대학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2
- 각 단과대학별 (도시락) 간담회 개최	2
- 교수복지	1
- 치과병원진입로 개통	1
- 학과평가에 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반영한 것	1
- 국제교류원의 축소 통합	1
- 자연대 앞 환경미화	1
- 단과대학 특성별 캠퍼스 조정	1
- 입학식 졸업식 행사	1
- 학생활동의 부분적 제한(잔디밭 음주 등)	1
- 활발한 활동	1
- 교육과 연구여건 개선	1
- 총장관사를 다른 용도로 돌린 것	1
- 기존에 비해 보다 합리적인 학과평가를 실시함	1
- 강릉원주대학교 뉴스(홈페이지)를 통한 교내 뉴스의 빠른 update	1
- 미래연 조직	1
- 학생들과의 소통시도	1
- 학교 성과지표 향상	1
-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함	1
- 공과대의 원주로의 이전시도	1
-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1
- 교육부 말을 잘 들은 것	1

■ 부정적인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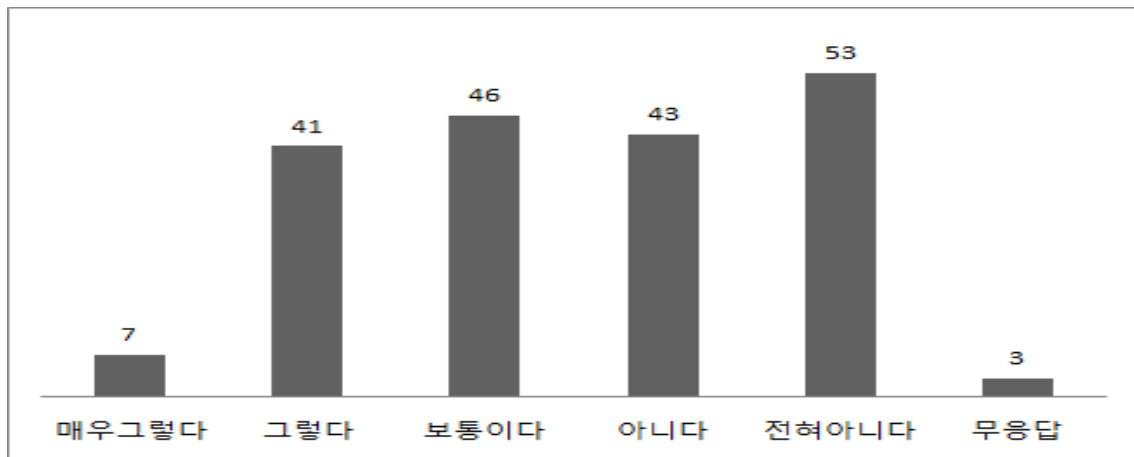
내용	빈도
- 교수, 학장, 교수회 고발 및 소송, 교수 징계, 해임 등 교권침해 문제	41
- 학내 구성원 간 불화조장 및 인화, 화합, 소통의 문제	27
- 교수회 동의 없는 보직자 임명 및 적절하지 못한 인사문제	22
- 학과 특성, 합리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획일적 학과 구조조정 문제	18
- 기성회 예산 배분 및 부적절한 집행 문제	15
- 교수회 법정기구화 공약 불이행 및 교수회 무시 문제	13
- 일방적인 비민주적 의사결정 및 밀실형 대학운영 문제	11
- 총장관사 문제	8
- 대외활동 및 리더십 부족 문제	6
- 교직원의 보수 및 복지 문제	4
- 지역과의 소통 및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관계 문제	3
- 교명 변경 문제	1
- 대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전무	1
- 방향성(비전)이 없음	1
- 음악과와 패션디자인학과 옮김, 건물의 예산 낭비	1
- 관련자료(대학운영과 관련된)의 공개거부 등	1
- 교양교육개편이 유명무실하게 된 것	1
- 교육여건에 비해 연구 여건의 개선이 뒤쳐진 점	1
- 총장 1번 더 할 욕심을 갖고 있음	1
- 학교이미지 실추	1
- 공식적인 발언의 거짓말 일삼기	1
- 선거공약 무시	1
- 단과대학 의견을 무시	1
- 다문화학과 개설	1
- 사과할 줄 모르는 인사이다	1

제 2 부 문항별 분석

1. 설문 문항별 응답

설문 1. 교수님께서는 현 총장이 대학운영 기본철학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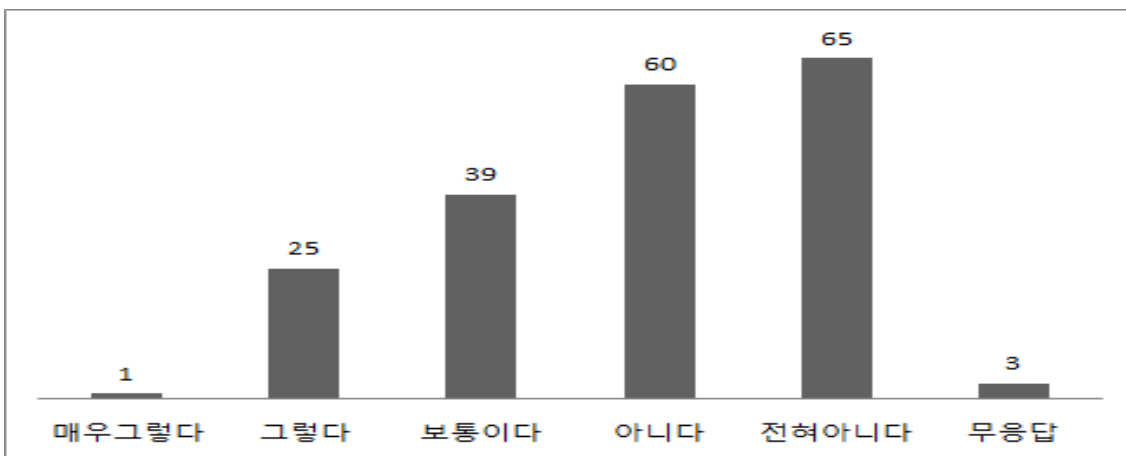
구분	빈도	%	유효%	누적%
유효				
매우 그렇다	7	3.63	3.68	3.68
그렇다	41	21.24	21.58	25.26
보통이다	46	23.83	24.21	49.47
아니다	43	22.28	22.63	72.11
전혀 아니다	53	27.46	27.89	100.00
소계	190	98.45	100.00	
무응답	3	1.55		
합계	193	100.00		



“교수님께서는 현 총장이 대학운영 기본철학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중 “매우 그렇다” 7명(3.68%), “그렇다” 41명(21.58%), “보통이다” 46명(24.21%), “아니다” 43명(22.63%), “전혀 아니다” 53명(27.89%)으로 나타났다. 이는 48명(25.26%)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에 96명(50.52%)의 교수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 응답의 2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학운영에 있어서 현 총장은 기본철학과 장기적인 비전이 없이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고 교수들이 평가하고 있다.

설문 2. 교수님께서는 현 총장이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 등 주요정책 수립에 교수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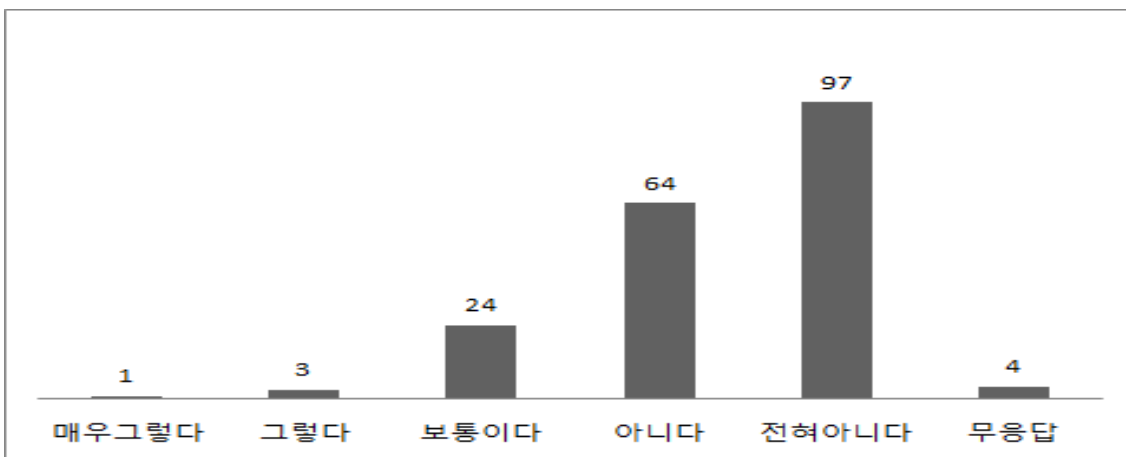
구분	빈도	%	유효%	누적%
유효				
매우 그렇다	1	0.52	0.53	0.53
그렇다	25	12.95	13.16	13.68
보통이다	39	20.21	20.53	34.21
아니다	60	31.09	31.58	65.79
전혀 아니다	65	33.68	34.21	100.00
소계	190	98.45	100.00	
무응답	3	1.55		
합계	193	100.00		



“교수님께서는 현 총장이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 등 주요정책 수립에 교수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중 “매우 그렇다” 1명(0.53%), “그렇다” 25명(12.95%), “보통이다” 39명(20.53%), “아니다” 60명(31.58%), “전혀 아니다” 65명(27.89%)으로 나타났다. 이는 26명(13.68%)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에 125명(65.79%)의 교수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 응답의 약 4.81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 등 주요정책 수립에 있어서 현 총장은 교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있다고 교수들이 평가하고 있다.

설문 3. 교수님께서는 현 총장이 약속한 교수회 법정기구화의 이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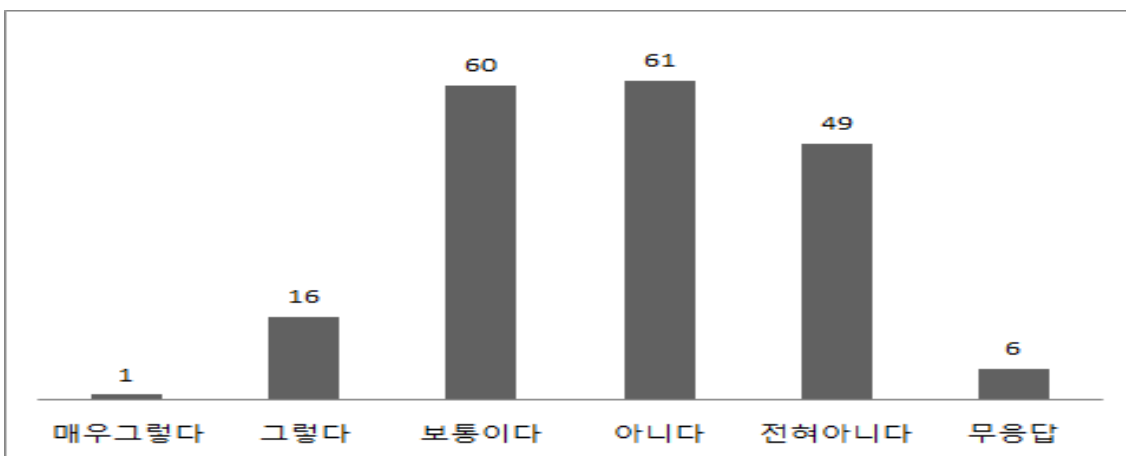
구분	빈도	%	유효%	누적%
유효				
매우 그렇다	1	0.52	0.53	0.53
그렇다	3	1.55	1.59	2.12
보통이다	24	12.44	12.70	14.81
아니다	64	33.16	33.86	48.68
전혀 아니다	97	50.26	51.32	100.00
소계	189	97.93	100.00	
무응답	4	2.07		
합계	193	100.0		



“교수님께서는 현 총장이 약속한 교수회 법정기구화의 이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중 “매우 그렇다” 1명(0.53%), “그렇다” 3명(1.59%), “보통이다” 24명(12.70%), “아니다” 64명(33.86%), “전혀 아니다” 97명(51.32%)으로 나타났다. 이는 4명(2.12%)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에 161명(85.18%)의 교수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 응답의 약 40.25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교수회 법정기구화와 관련되어 현 총장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절대다수의 교수들이 평가하고 있다.

설문 4. 교수님께서는 현 총장이 지역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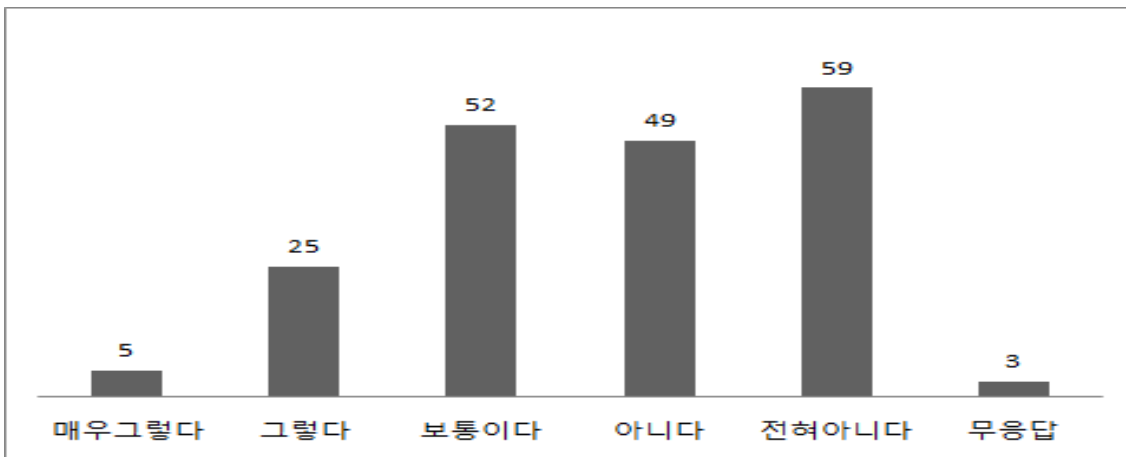
구분	빈도	%	유효%	누적%
유효				
매우 그렇다	1	0.52	0.53	0.53
그렇다	16	8.29	8.56	9.09
보통이다	60	31.09	32.09	41.18
아니다	61	31.61	32.62	73.80
전혀 아니다	49	25.39	26.20	100.00
소계	187	96.89	100.00	
무응답	6	3.11		
합계	193	100.0		



“교수님께서는 현 총장이 지역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중 “매우 그렇다” 1명(0.53%), “그렇다” 16명(8.56%), “보통이다” 60명(32.09%), “아니다” 61명(32.62%), “전혀 아니다” 49명(26.20%)으로 나타났다. 이는 17명(9.09%)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에 110명(58.82%)의 교수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 응답의 약 6.47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 총장이 지역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교수들이 평가하고 있다.

설문 5. 교수님께서서는 현 총장이 진행한 우리대학 구조조정이 합리적으로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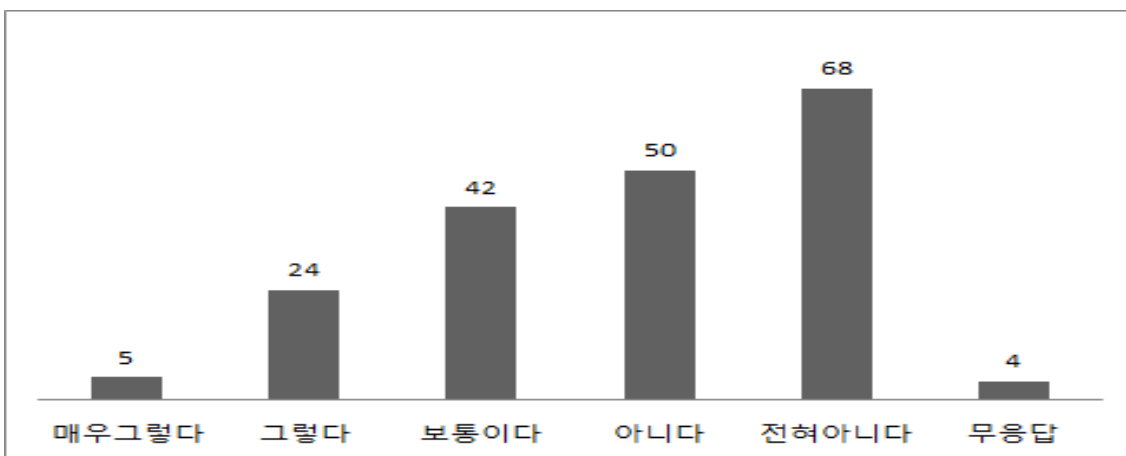
구분	빈도	%	유효%	누적%
유효				
매우 그렇다	5	2.59	2.63	2.63
그렇다	25	12.95	13.16	15.79
보통이다	52	26.94	27.37	43.16
아니다	49	25.39	25.79	68.95
전혀 아니다	59	30.57	31.05	100.00
소계	190	98.45	100.00	
무응답	3	1.55		
합계	193	100.0		



“교수님께서서는 현 총장이 진행한 우리대학 구조조정이 합리적으로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중 “매우 그렇다” 5명(2.63%), “그렇다” 25명(13.16%), “보통이다” 52명(27.37%), “아니다” 49명(25.79%), “전혀 아니다” 59명(31.05%)으로 나타났다. 이는 30명(15.79%)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에 108명(56.84%)의 교수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 응답의 약 3.6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 총장이 진행한 우리대학 구조조정은 합리적으로 잘 진행되지 못했음을 교수들이 평가하고 있다.

설문 6. 교수님께서서는 현 총장이 보직자를 공정하게 인선, 임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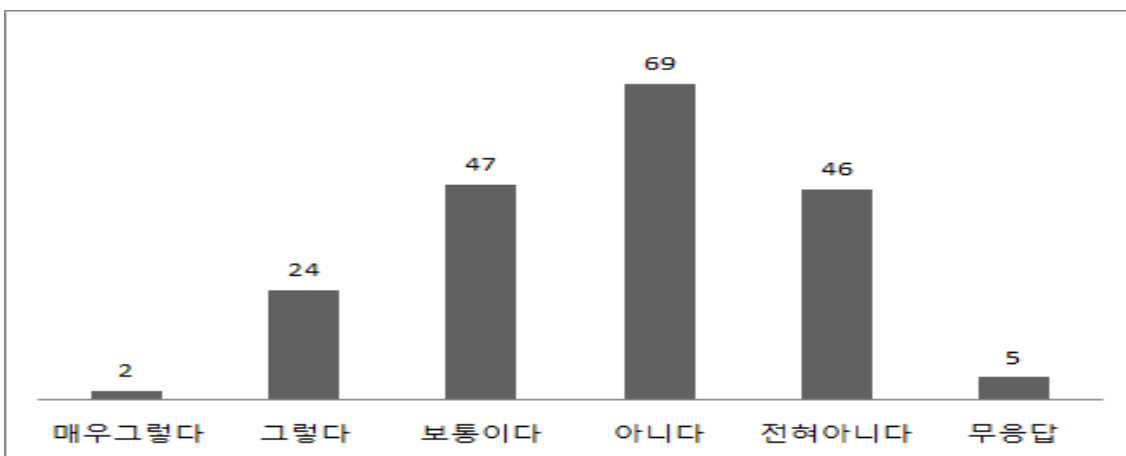
구분	빈도	%	유효%	누적%
유효				
매우 그렇다	5	2.59	2.65	2.65
그렇다	24	12.44	12.70	15.34
보통이다	42	21.76	22.22	37.57
아니다	50	25.91	26.46	64.02
전혀 아니다	68	5.23	35.98	100.00
소계	189	97.93	100.00	
무응답	4	2.07		
합계	193	100.0		



“교수님께서서는 현 총장이 보직자를 공정하게 인선, 임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중 “매우 그렇다” 5명(2.65%), “그렇다” 24명(12.70%), “보통이다” 42명(22.22%), “아니다” 50명(26.46%), “전혀 아니다” 68명(35.98%)으로 나타났다. 이는 29명(15.34%)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에 118명(62.44%)의 교수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 응답의 약 4.07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 총장의 보직자 인선, 임명은 공정하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교수들이 평가하고 있다.

설문 7. 교수님께서서는 현 총장의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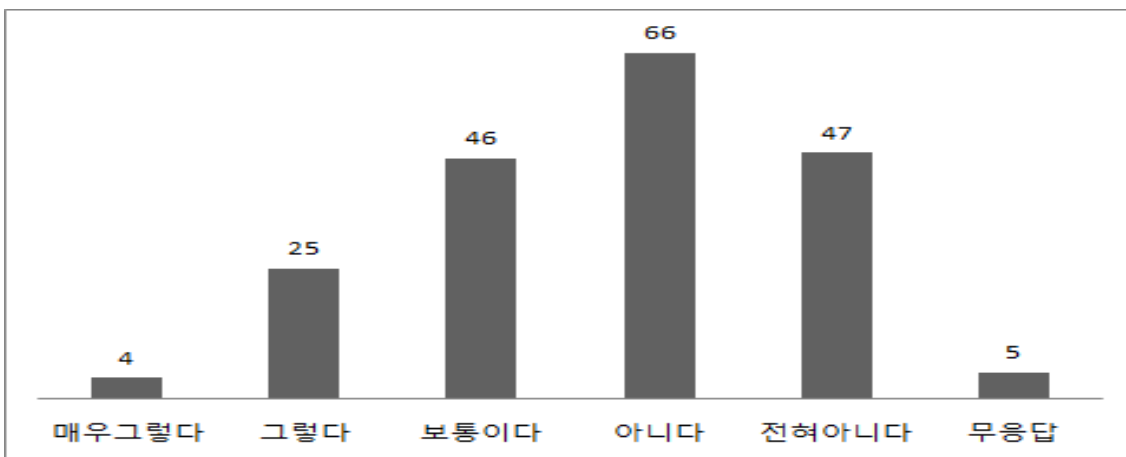
구분	빈도	%	유효%	누적%
유효				
매우 그렇다	2	1.04	1.06	1.06
그렇다	24	12.44	12.77	13.83
보통이다	47	24.35	25.00	38.83
아니다	69	35.75	36.70	75.53
전혀 아니다	46	23.83	24.47	100.00
소계	188	97.41	100.00	
무응답	5	2.59		
합계	193	100.0		



“교수님께서서는 현 총장의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중 “매우 그렇다” 2명(1.06%), “그렇다” 24명(12.77%), “보통이다” 47명(25.00%), “아니다” 69명(36.70%), “전혀 아니다” 46명(24.47%)으로 나타났다. 이는 26명(13.83%)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에 115명(61.17%)의 교수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 응답의 약 4.42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 총장의 예산 집행은 투명하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교수들이 평가하고 있다.

설문 8. 교수님께서서는 현 총장이 대학발전을 위하여 교육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충분히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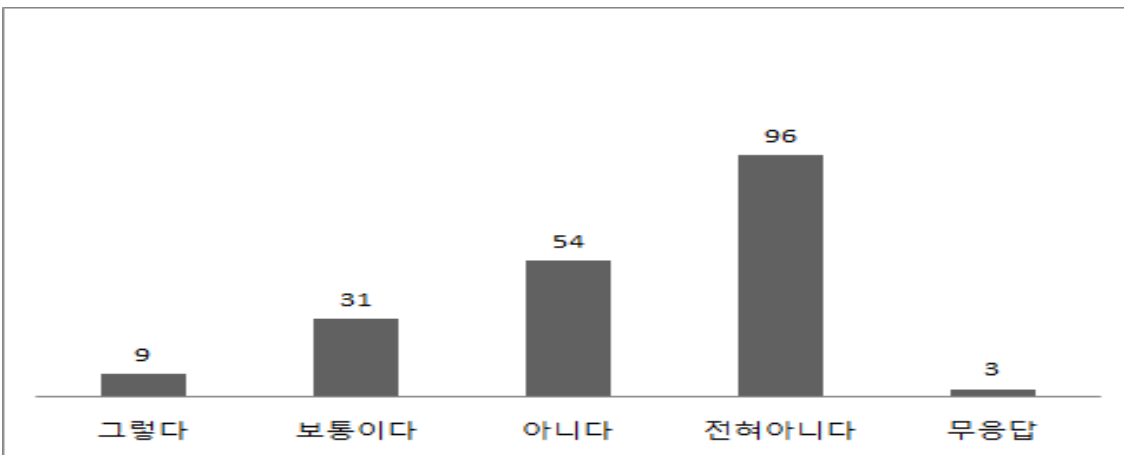
구분	빈도	%	유효%	누적%
유효				
매우 그렇다	4	2.07	2.13	2.13
그렇다	25	12.95	13.30	15.43
보통이다	46	23.83	24.47	39.89
아니다	66	34.20	35.11	75.00
전혀 아니다	47	24.35	25.00	100.00
소계	188	97.41	100.00	
무응답	5	2.59		
합계	193	100.0		



“교수님께서서는 현 총장이 대학발전을 위하여 교육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충분히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중 “매우 그렇다” 4명(2.13%), “그렇다” 25명(13.30%), “보통이다” 46명(24.47%), “아니다” 66명(35.11%), “전혀 아니다” 47명(25.00%)으로 나타났다. 이는 29명(15.43%)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에 113명(60.11%)의 교수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 응답의 약 3.90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 총장은 대학발전을 위하여 교육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충분히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교수들이 평가하고 있다.

설문 9. 교수님께서는 현 총장 취임 후 교직원의 보수 및 복지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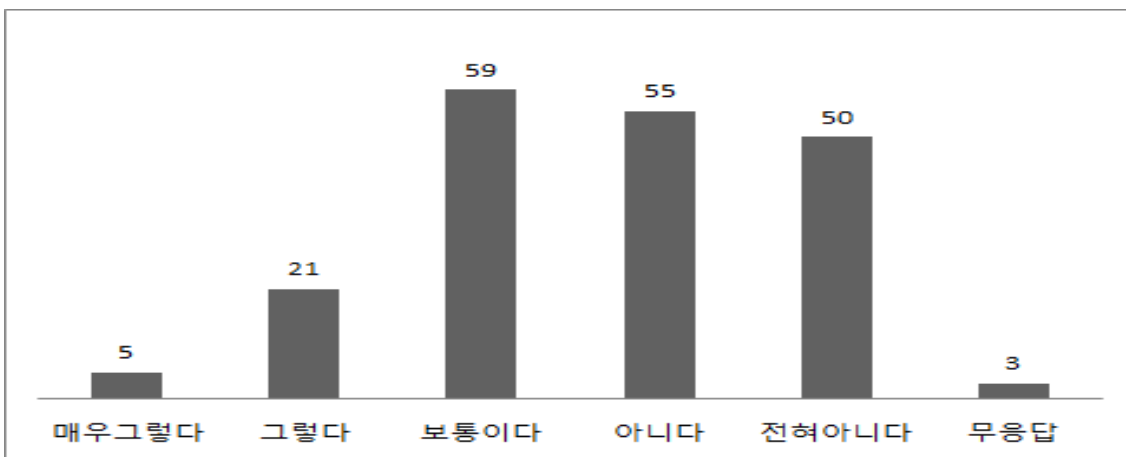
구분	빈도	%	유효%	누적%
유효				
매우 그렇다	0	0.00	0.00	0.00
그렇다	9	4.66	4.74	4.74
보통이다	31	16.06	16.32	21.05
아니다	54	27.98	28.42	49.47
전혀 아니다	96	49.74	50.53	100.00
소계	190	98.45	100.00	
무응답	3	1.55		
합계	193	100.0		



“교수님께서는 현 총장 취임 후 교직원의 보수 및 복지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중 “매우 그렇다” 0명(0%), “그렇다” 9명(4.74%), “보통이다” 31명(16.32%), “아니다” 54명(28.42%), “전혀 아니다” 96명(50.53%)으로 나타났다. 이는 9명(4.74%)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에 150명(78.95%)의 교수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 응답의 약 16.67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 총장 취임 후 교직원의 보수 및 복지 수준은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는 것으로 교수들이 평가하고 있다.

설문 10. 교수님께서는 현 총장의 취임 후 교육과 연구요건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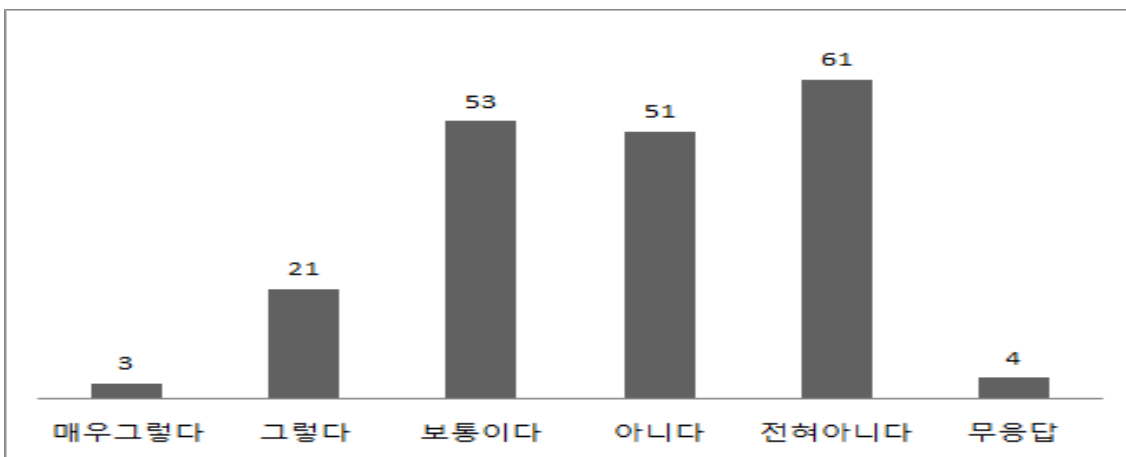
구분	빈도	%	유효%	누적%
유효				
매우 그렇다	5	2.59	2.63	2.63
그렇다	21	10.88	11.05	13.68
보통이다	59	30.57	31.05	44.74
아니다	55	28.50	28.95	73.68
전혀 아니다	50	25.91	26.32	100.00
소계	190	98.45	100.00	
무응답	3	1.55		
합계	193	100.0		



“교수님께서는 현 총장의 취임 후 교육과 연구요건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중 “매우 그렇다” 5명(2.63%), “그렇다” 21명(11.05%), “보통이다” 59명(31.05%), “아니다” 55명(28.95%), “전혀 아니다” 50명(26.32%)으로 나타났다. 이는 26명(13.68%)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에 105명(55.27%)의 교수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 응답의 약 4.04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 총장의 취임 후 교육과 연구요건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교수들이 평가하고 있다.

설문 11. 교수님께서서는 현 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역량(리더십, 연구기획력, 협동심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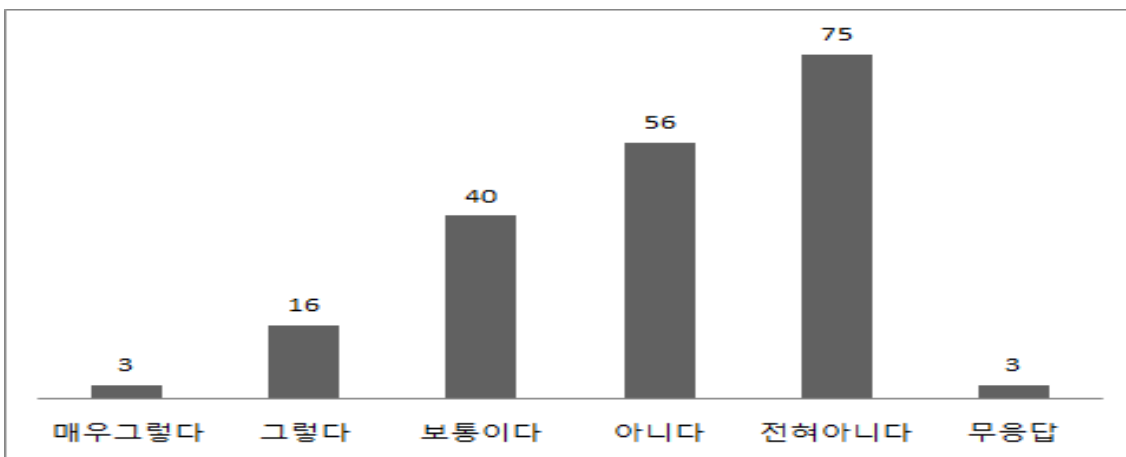
구분	빈도	%	유효%	누적%
유효				
매우 그렇다	3	1.55	1.59	1.59
그렇다	21	10.88	11.11	12.70
보통이다	53	27.46	28.04	40.74
아니다	51	26.42	26.98	67.72
전혀 아니다	61	31.61	32.28	100.00
소계	189	97.93	100.00	
무응답	4	2.07		
합계	193	100.0		



“교수님께서서는 현 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역량(리더십, 연구기획력, 협동심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중 “매우 그렇다” 3명(1.59%), “그렇다” 21명(11.11%), “보통이다” 53명(28.04%), “아니다” 51명(26.98%), “전혀 아니다” 61명(32.28%)으로 나타났다. 이는 24명(12.70%)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에 112명(59.26%)의 교수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 응답의 약 4.67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 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역량(리더십, 연구기획력, 협동심등)이 없다는 것으로 교수들이 평가하고 있다.

설문 12. 교수님께서는 현 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역할(교직원간의 화합 및 소통, 지역과 대학의 소통 등)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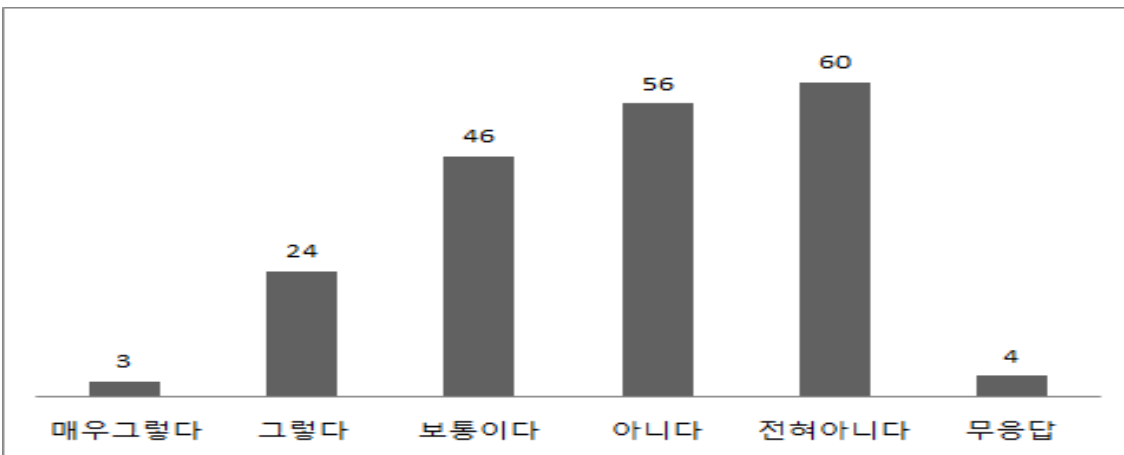
구분	빈도	%	유효%	누적%
유효				
매우 그렇다	3	1.55	1.59	1.59
그렇다	24	12.44	12.70	14.29
보통이다	46	23.83	24.34	38.62
아니다	56	29.02	29.63	68.25
전혀 아니다	60	31.09	31.75	100.00
소계	189	97.93	100.00	
무응답	4	2.07		
합계	193	100.00		



“교수님께서는 현 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역할(교직원간의 화합 및 소통, 지역과 대학의 소통 등)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중 “매우 그렇다” 3명(1.59%), “그렇다” 16명(12.70%), “보통이다” 40명(24.34%), “아니다” 56명(29.63%), “전혀 아니다” 75명(31.75%)으로 나타났다. 이는 19명(14.29%)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에 131명(61.38%)의 교수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 응답의 약 6.89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 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역할(교직원간의 화합 및 소통, 지역과 대학의 소통 등)을 잘 못하는 것으로 교수들이 평가하고 있다.

설문 13. 교수님께서서는 현 총장의 취임 후 대학운영 성과의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	유효%	누적%
유효				
매우 그렇다	3	1.55	1.59	1.59
그렇다	24	12.44	12.70	14.29
보통이다	46	23.83	24.34	38.62
아니다	56	29.02	29.63	68.25
전혀 아니다	60	31.09	31.75	100.00
소계	189	97.93	100.00	
무응답	4	2.07		
합계	193	100.00		



“교수님께서서는 현 총장의 취임 후 대학운영 성과의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중 “매우 그렇다” 3명(1.59%), “그렇다” 24명(12.70%), “보통이다” 46명(24.34%), “아니다” 56명(29.63%), “전혀 아니다” 60명(31.75%)으로 나타났다. 이는 27명(14.29%)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에 116명(61.38%)의 교수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 응답의 약 4.30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 총장의 취임 후 대학운영 성과의 전반적인 평가는 잘 못하는 것으로 교수들이 평가하고 있다.

2.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

(아래에 표시된 회원 번호는 접수 순서에 따라 임의로 부여한 것으로 의견을 적은 회원들의 번호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1) 가장 잘한 일

● 회원 3.

- 교수복지

● 회원 4.

- 치과병원 진입로 개통

● 회원 5.

- LINC 등 다양한 대학지원 사업 선정
- 예체능대학 통합 등 구조조정

● 회원 9.

- 학과평가에 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반영한 것

● 회원 13.

- 국제교류원의 축소 통합
- 학생맞춤형 교육(수요자 중심 교육)

● 회원 15.

- 무능력

● 회원 17.

- 자연대 앞 환경미화

● 회원 19.

- 연구업적 기준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연구하지 않는 교수의 문제점을 해결하려 시도한 일

● 회원 52.

- 단과대학 특성별 캠퍼스 조정

● 회원 55.

- 특성화 사업유치

● 회원 57.

- 학생중심의 대학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한 점
- 국공립대 평가 순위를 어느 정도 향상 시킨 점
- 재정지원 사업에서의 성공

● 회원 58.

- 좌우상하를 둘러보지 않고 밀어 붙이기 식 운영, 좋은 점도 되겠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단점이 너무 많음

● 회원 71.

- 입학식 졸업식 행사
- 학생활동의 부분적 제한(잔디밭 음주 등)

● 회원 73.

- 총장이라면 누구나 하는 수준이라서 특히 없음

● 회원 74.

- 활발한 활동
- 여러 가지 사업 참여 및 성과

● 회원 80.

- 교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교육과 연구여건 개선

● 회원 84.

- 특성화 사업을 따낸 것
- 총장관사를 다른 용도로 돌린 것

● 회원 86.

- 교육부 예산을 차질 없이 가져옴(낮은 대학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 기존에 비해 보다 합리적인 학과평가를 실시함

● 회원 89.

- 국책사업 수주 및 관리시스템

● 회원 91.

- 연구 실적이 전혀 없는 교원은 성과급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한 일

● 회원 93.

- 강릉원주대학교 뉴스(홈페이지)를 통한 교내 뉴스의 빠른 update
- 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회원 95.

- 모르겠음

● 회원 100.

- 대학구조조정
- 정부지원 사업 수주

● 회원 103.

- 학과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 회원 104.

- 재정 사업 확보

● 회원 106.

- 전혀 없다

● 회원 108.

-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 회원 119.

- 각 단과대학별 도시락 회의
- 미래연 조직

● 회원 120.

- 통합대학의 안정을 위한 노력과 중 순위 대학에서 계속 중상위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시키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 회원 124.

- 학생들과의 소통시도

● 회원 140.

- 단과대학별 간담회 개최

● 회원 149.

- 학교 성과지표 향상

● 회원 165.

- 외부정책자금
-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함

● 회원 172.

- 공과대의 원주로의 이전시도

● 회원 175.

- 재정지원

● 회원 183.

-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 회원 188.

- 교육부 말을 잘 들은 것

● 회원 189.

- 학생들과의 소통

● 회원 190.

- 잘 모르겠음

● 회원 191.

- 역량강화 사업
- 재정보호

2) 가장 잘못 한일

● 회원 1.

- 학내 구성원 간 불화조장
- 보직자임명(특히 본부 핵심인사)

● 회원 3.

- 잘 모름

● 회원 4.

- 교수 학장 교수회의 고발 건
- 구조조정 학과

● 회원 5.

- 소송이 잦은 점

● 회원 6.

- 필요한 교수들 징계

● 회원 8.

- 획일적 구조조정
- 학과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조정

- 원주캠퍼스에 부적합한 보직인선

● 회원 9.

- 교수들과 대화가 전혀 없는 것 같다
- 보직자들의 능력과 실적이 없이, 이들을 선발하는 것 같다

● 회원 10.

- 구조조정
- 예산배분

● 회원 11.

- 총장은 학과평가에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덕목을 저버렸다. 인문대에 불리한 문항과 점수 배분을 마냥 허용함으로써 평생 학문과 교육에 매진한 인문대 교수들의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 매년 이어지는 학과평가가 최소한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함으로써 그 평가의 결과가 학과폐쇄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 엄청난 저항과 법적 투쟁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 회원 14.

- 총장관사 문제에 대한 처신

● 회원 17.

- 인사
- 교원징계(해임) 및 고소

● 회원 18.

- 비민주적 대학운영
- 관련자료(대학운영과 관련된)의 공개거부 등

● 회원 19.

- 교양교육개편이 유명무실하게 된 것
- 기초학문분야를 보호하지 않고 취업률 등 비교육적인 잣대(교육부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학과평가 등을 통해 학내 구조조정을 시도한일

● 회원 20.

- 교수와 재판까지 간 점
- 밀실형 학교운영

● 회원 21.

- 인사처리(학장면직)
- 교수징계(김근중)

● 회원 22.

- 기성회예산 부당 사용하여 총장공관 및 집기 등 구입
- 교수회 법정기구화 공약 불이행
- 교수회의 동의 없이 보직자(교무위원) 임명

● 회원 23.

- 교직원간의 화합 및 소통이 부족하다고 본다. 그 예로 교내 구성원들 간의 문제들을 법정으로 가는 일들이다.

● 회원 24.

- 소수의 보직교수만으로 대학행정과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일. 총장은 대학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총장은 반성해야하고, 교수회는 더욱 압박을 가해야한다.

● 회원 26.

- 교수들과의 소송

● 회원 27.

- 인사

● 회원 30.

- 교수를 고발하는 총장이 어디 있는가?

● 회원 31.

- 기성회비 유용
- 학과장 고발

- 구조조정
- 교수회 사무처장 해임
- 예산낭비

● 회원 32.

- 처장 등 보직교수 임명
- 교수회 무시
- 총장공관 불법비용 사용

● 회원 35.

- 교수해임의 건

● 회원 36.

- 교직원화합과 지역과 소통을 잘못함

● 회원 40.

- 기획처장 및 보직자 임명의 사 조직화(불공정한 보직자 임명)
- 교수회 법정화 불이행
- 교수의 징계 남발

● 회원 44.

- 교수를 형사 고소하여 재판을 받도록 한 일
- 패션디자인학과와 음악과를 강릉으로 오도록 한 일

● 회원 47.

- 기성회예산 불법 전용
- 같은 교수(동료 교수)를 징계(면직 등)하는 못된 총장임

● 회원 49.

- 교내의 갈등문제를 법정으로 이끌고 간점
- 연구윤리에 문제가 제기되어 사회여론화 된 인사를 연구윤리 위원장 보직에 임명한 점

● 회원 50.

- 인사

● 회원 51

- 부당한 총장 사택구입
- 소통부재

● 회원 52.

- 소통부재 및 통합(화합)노력 부재

● 회원 53.

- 구성원간의 인화

● 회원 54.

- 교수인사문제
- 교수 고발 건 및 징계건

● 회원 55.

- 교수들과의 불 소통
- 교수회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학칙에 포함하지 않음

● 회원 57.

- 교육여건에 비해 연구 여건의 개선이 뒤쳐진 점

● 회원 58.

- 학교일에 대하여 구성원의 입장과 상황을 잘 둘러보면서 운영을 이끌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그리고 주도적인 고집으로만 일관하여 운영하여 모든 구성원들의 불화가 팽배하였음.
- 총장은 대외적 일에 집중하였으면 좋겠고, 학내일은 삼 처장이 하여 학교가 대외적으로 성과가 있도록 활동하면 좋겠는데 그런 성과가 전혀 없음.

● 회원 65.

- 비민주적 대학운영
- 규정과 법령에 따라 대학을 운영한다는 명분으로 교수들을 협박하고 소송하기(퇴임 후 어떤 형태로는 응

분의 대가를 치러야 함) 예를 들어 교수회에서 규정을 만들어 학과로 돌아오는 것을 금지

- 자의적으로 기성회 예산 운영(자신에게 면담을 요청한 교수들을 신변에 위협을 가했다고 침소봉대하는 비겁함으로 보직을 해임하고 신분상 불이익을 공갈, 협박하는 비열한 행위)

● 회원 67.

- 보직인선 실패: 징계해야 마땅한 김남두를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대학원장에 임명한 일, 교수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보직임명 및 해임
- 기성 회계 예산을 불법 전용하여 총장 공관, 집기들 마련
- 교수님들과 법적 소송별인 일
- 교수회 법정 기구화 약속을 지키지 않음
- 총장1번 더 할 욕심을 갖고 있음

● 회원 70.

- 보직자의 인선, 임명
- 교직원의 보수 및 복지

● 회원 71.

- 교수회 법정기구화 미진
- 교수와의 마찰

● 회원 73.

- 교내분규에 관여하고 고소고발한 점

● 회원 74.

- 교수들과의 불협화음
- 교수 고발

● 회원 75.

- 교직원과의 소통 부재
- 보직자(참모)인선 3불(무)능, 불성실, 불친화) 인사 보직인선

● 회원 78.

- 기성회예산 남용

- 교수사회 갈등조장(교수해임, 법정고발 등)

● 회원 79.

- 지역과의 소통부재
- 리더십 부족

● 회원 80.

- 구조조정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교원간의 화합 리더십

● 회원 84.

- 특별히 없음

● 회원 86.

- 교수들과의 고소고발 건
- 소통의 실패

● 회원 89.

- 교직원 갈등심화
- 보직자 임명

● 회원 91.

- 총장공관의 반환 및 공금유용
- 대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전무
- 다문화학과 개설

● 회원 92.

- 공약 미 이행 혹은 불성실 이행(교수회 법정 기구화)
- 대외활동 부족

● 회원 93.

- 교수들과의 법정 다툼
- 외부활동을 통한 학교 발전기여 부족

● 회원 94.

- 학과이전, 유사학과 통폐합과 관련된 소통부재
- 학내 여러 소송 및 불협화음에 대한 조정능력 및 포용력 부족

● 회원 95.

- 방향성(비전) 없음

● 회원 103.

- 교수회 법정기구화 등 약속이행이 잘 안되는 점

● 회원 106.

- 서로 존중해야 할 교수 간의 관계를 고소 고발의 분열로 몰고 가고 있다
- 대학 인사행정의 독재와 사리사욕의 문제점

● 회원 107.

- 사과할 줄 모르는 인사이다(그랬다면 멋있었을 텐데)
- 술 한잔 같이 하면 해결될 일에 휘둘러서는 안 될 칼을 휘둘렀다

● 회원 108.

- 교수회 학칙화
- 구성원과의 소통

● 회원 113.

- 통합을 포함한 장기적인 학교 발전계획
- 교수님들의 복지 정책
- 평교수님들과의 의사소통

● 회원 114.

- 김근중 교수 해임 건
- 기성회 예산 부당 사용 건

● 회원 115.

- 음악과와 패션디자인학과 옮김, 건물의 예산 낭비

- 교수들과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체교수들의 의견 수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회원 116.

- 예산투명성
- 교권침해
- 교수들 간의 화합

● 회원 118.

- 거짓 기만 학교 내의 일들을 외부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 회원 119.

- 보직자 임명

● 회원 120.

- 특이한 잘못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회원 122.

- 보직자 인선과 임명(집행부)

● 회원 123.

- 공관구입
- 대외교섭역량 부족

● 회원 124.

- 전체교수님들의 화합을 위한 시도

● 회원 126.

- 일방적인 의사결정

● 회원 127.

- 인사과정이 공정치 못하다

● 회원 128.

- 교수해임
- 교수고발
- 대학과 구조조정의 형평성, 합리성이 결여된 잘못된 인사

● 회원 129.

- 기성회비 남용
- 교수고발사건
- 구조조정 의견수렴하지 않아서 계속 문제 발생
- 학교이미지 실추

● 회원 130.

- 교수고발 및 해임 건
- 대학구조조정

● 회원 131.

- 대학구조조정
- 교수해임

● 회원 132.

- 기성회비 남용
- 공식적인 발언의 거짓말 일삼기
- 교수회에 대한 존중감 무시
- 교수 고발 및 해임
- 잘못된 구조로 구조조정
- 선거공약 무시

● 회원 133.

- 교수들과의 법정다툼

● 회원 134.

- 단과대학 의견을 무시한 학장 임용

● 회원 135.

- 소통부재

● 회원 136.

- 교수처우 및 복지 개선 노력의 부재

● 회원 137.

- 구조조정의 거친 운영

● 회원 138.

-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 몇몇 사항에서 일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 회원 139.

- 교원간의 화합

● 회원 146.

- 기성회예산으로 총장 공관 임대 및 가구 구입

● 회원 148.

- 구조조정에 따른 학과 지원 및 발전 방안의 부재

● 회원 149.

- 예산의 투명한 집행 및 공개
- 학교 중대 사안에 관련해 교내 교수 의견 수합 반영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 회원 151.

- 구조조정(구성원과의 합의 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체계성 비전 등이 전혀 없는 졸속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짐)

● 회원 152.

- 소통불통

● 회원 153.

- 동료교수 고발

● 회원 154.

- 동료교수 고발

● 회원 155.

- 총장 공판문제
- 무원칙 보직자 인선

● 회원 160.

- 너무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일처리를 하며, 의견수렴으로 합리적 결정을 하지 않음

● 회원 161.

- 교내 일의 법원 고발 건

● 회원 162.

- 대화 없는 학과 구조조정 및 본교와 캠퍼스 간 학과이동

● 회원 164.

- 구성원 화합

● 회원 165.

-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관계
- 교명변경

● 회원 166.

- 교수고발 건
- 교수해임 건

● 회원 167.

- 교수들의 대표로 선출하였는데 구성원의 의견 수렴 없는 닫힌 총장이라는 것
- 본인의 뜻대로 학교를 운영하는 점

● 회원 169.

- 급여, 인사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

● 회원 172.

- 교수회 학칙화 미 이행
- 전문성과 무관한 보은성 인사

● 회원 174.

- 기성회비로 총장공관 구입

● 회원 175.

- 학교화합에 문제

● 회원 176.

- 화합부족

● 회원 177.

- 보직교수의 해임
- 평교수 검찰고발

● 회원 181.

- 총장관사 반납 후 기성회비를 통한 아파트 구입
- 교수검찰 고발 건
- 원칙 없는 대학행정
- 교수회 법정 기구화 연기

● 회원 183.

- 교수회장 출신으로 교수회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

● 회원 188.

- 합리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구조조정

● 회원 189.

- 구두로 행한 것을 잘 지키지 못한 점(예: 연찬회 때 패션디자인학과와 음악과를 소속은 예술대학으로 하고 학과 운영은 원주캠퍼스에 존치한 상태로 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점, 언행일치가 안 된다는 점)

● 회원 190.

- 잘 모르겠음

● 회원 191.

- 교직원간에 화합하지 못하고 소송까지 가는 일
- 예산이 줄어든 점

3. 심화분석

1) 두 문항간의 상관관계

<표 2>의 13개 문항에 관하여 두 문항 씩 짝을 지어 스피어맨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모든 문항들은 두 문항 별로 독립성을 보이지 않고 강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모든 13개 문항에서 두 문항씩 짝을 지었을 때, 전방욱 총장에 대한 교수들의 중간평가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

```
. spearman v01 v02

Number of obs =      190
Spearman's rho =      0.7792
Test of Ho: v01 and v02 are independent
Prob > |t| =      0.0000
```

2) 두 모평균의 차이에 관한 추론

<표 2>의 13개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교수들의 의견이 성별에 따라 동일한 지를 분석한 결과, [문항 3: 교수님께서는 현 총장이 약속한 교수회 법정기구화의 이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5: 교수님께서는 현 총장이 진행한 우리대학 구조조정이 합리적으로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8: 교수님께서는 현 총장이 대학발전을 위하여 교육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충분히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이 교수들의 성별에 따라 다른 답변을 보였고, 나머지 문항들은 교수들의 성별에 관계없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유의수준=0.05). 이는 13개 문항 중 10개의 문항에서, 전방욱 총장에 대한 교수들의 중간평가의 의견이 성별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비슷한 경향을 보임을 의미한다.

[참고]

```
. ttest v03, by( v16)

Two-sample t test with equal variances
```

Group	Obs	Mean	Std. Err.	Std. Dev.	[95% Conf. Interval]	
1	152	4.414474	.0593652	.7319038	4.29718	4.531767
2	20	3.95	.1846048	.8255779	3.563618	4.336382
combined	172	4.360465	.0576204	.7556847	4.246726	4.474204
diff		.4644737	.1767229		.1156198	.8133275

```
diff = mean(1) - mean(2)
Ho: diff = 0
Ha: diff < 0
Pr(T < t) = 0.9953

t = 2.6283
degrees of freedom = 170
Ha: diff != 0
Pr(|T| > |t|) = 0.0094
Ha: diff > 0
Pr(T > t) = 0.0047
```

3) 두 변수 간의 동일성(독립성) 검정

교수들의 성별과 <표 2>의 13개 문항 각각에 관하여 독립성검정을 한 결과, [문항 7: 교수님께서는 현 총장의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11: 교수님께서는 현 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역량(리더십, 연구기획력, 협동심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이 교수들의 성별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다(유의수준=0.05). 이는 13개 문항 중 11개의 문항에서, 전방욱 총장에 대한 교수들의 중간평가의 의견이 교수들의 성별과 무관하게 상당히 비슷한 경향을 보임을 의미한다.

교수들의 연령대와 <표 2>의 13개 문항 각각에 관하여 독립성검정을 한 결과, [문항 4: 교수님께서는 현 총장이 지역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13: 교수님께서는 현 총장의 취임 후 대학운영 성과의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이 교수들의 연령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다(유의수준=0.05). 이는 13개 문항 중 11개의 문항에서, 전방욱 총장에 대한 교수들의 중간평가의 의견이 교수들의 연령대에 관계없이 상당히 비슷한 경향을 보임을 의미한다.

[참고]

```
. tab2 v07 v16, chi2
```

```
-> tabulation of v07 by v16
```

v07	v16		Total
	1	2	
1	0	1	1
2	19	2	21
3	36	8	44
4	61	4	65
5	35	5	40
Total	151	20	171

Pearson chi2(4) = 11.3962 Pr = 0.022

```
. tab2 v04 v17, chi2
```

```
-> tabulation of v04 by v17
```

v04	v17				Total
	2	3	4	5	
1	0	0	0	1	1
2	1	1	11	1	14
3	1	23	24	6	54
4	2	10	38	7	57
5	0	6	32	7	45
Total	4	40	105	22	171

Pearson chi2(12) = 27.3681 Pr = 0.007